

지역문화시설 국산목재로 바뀔드립니다 !

- 하동문화예술회관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대상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를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대상시설로 경남 하동문화예술회관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효과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공공과 민간 건축분야에서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2023년부터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공공시설물의 국산목재 활용계획의 타당성과 시·도별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1곳이 선정되었다.

지난해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선정되어 노후화 된 실내가 국산 목재로 새단장 될 예정이다. 2024년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심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친환경 탄소저장고로서 국산 목재를 사용한 만큼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높아진다” 라며, “국산 목재 사용의 장점을 알려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청 목재산업과	책임자	과 장	조영희 (042-481-4200)
		담당자	사무관	박지현 (042-481-8875)